

10대에 윤락강요 화대 뜯어

포주 구속 인신매매단 3명 수배

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인신매매단으로부터 사들인 미성년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, 화대를 뜯어온 이찬기(34·여관업·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412-1)씨를 윤락행위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, 미성년자들을 납치해 이씨에게 팔아넘긴 김영길(38·무직·남대문구 남대문로 5가 606)씨 등 전문인신매매단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

11월 김씨 등으로부터 1백20만 원을 주고 오아무개(15·경기도 부천시)양을 넘겨받아 자신이 경영하는 홍여인숙에 감금한 뒤 윤락행위를 강요해 오양의 화대 6백만원 중 3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0대 소녀 3명으로부터 화대 1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.

오양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르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께 야근을 마치고 친구 김아무개양과 함께 힐튼호텔 앞 잔디밭에 나갔다가 20대 청년 2명에게 남산 숲속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뒤 김씨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.

89.
5.9